투데이 칼럼

삶의 위기를 기회로 알고 나 자신과 혹독하게 싸우자

박 태 순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 세상 살다보면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 온다.

어느때는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한순간 숨을 머금게 하지만 이 또한 위기를 잘 견디어 나가면 나의 삶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 가는 일생에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기업으로 보면 생산 차질로 공장 운영 위기, 개인으로 보면 고용위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닥쳐온 위기를 받아들여 위기를 극복해 가는게 아니라 견디어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 갔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 자신의 내면 속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누군가 나를 평정으로 잡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간절한 바램은 꿈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므로 하루 하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이 아닌 바램으로 견디어 나간다면 코로나는 멀지않아 우리 곁을 떠나갈 겁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성장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로 탈진 상태가 되어 주저 앉기도 한다.

만약 그들 자신에게 의지력이 없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감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을 쓰러뜨리게 한다.

마찬가지로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지혜라고 생각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속에 나 자신과 외롭게 혹독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혹독한 싸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뒤 돌아 보고 미처 자신을 살피지 못한 것,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입게 되었을 상처와 아픔 등을 냉정 하게 되돌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대부분 나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대상들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때 그 친구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잘못된 선배만 만나지 않았더라면.보다더 돈 많은 부모만 만났더라면 등등 가정을 해보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 하며 남탓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 속에는 내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견디어 가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견디어 가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워 이겨 내야 하고 하루 하루 닥쳐 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견디어 가기 위해 자신과의 냉정한 내면의 객관적 관찰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항상 지난일에 반성을 이끌어 내고 그것이 내적으로 성장 할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문병란 시인은 이렇게 말 했습니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고"이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모두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 들이며 하루 하루 견디어 나간다면 내일의 희망은 꼭 찾아 온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 성장의 내일을 향해 열심히 살아 갑시다.

기고문

그 날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신 현 주
전북서부보훈지청
주무관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는 3월이 다가온다.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될 학생들과 3월 첫날의 공휴일을 기다릴 직장인들, 그리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던 많은 이들에게 3월은 어느 때보다 설렘이 가득한 달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3월에는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자 노력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3·1절' 하면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소 모두가 두 팔 벌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한 장면처럼 떠오른다.

이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 만세를 외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04년 한·일 의정서를 시작으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1~3차에 걸친 한· 일 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 및 행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을 맺어 조선의 국권을 피탈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한다.

1910년에 시작된 일본의 무단통치는 조선인에게만 적용 했던 조선 태형령, 헌병 경찰이 일반 경찰 업무에 관여하였던 헌병 경찰제도,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해 시행하였던 토지 조사 사업 등만 보아도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조선인들의 마음 속 울분은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 해야한다.' 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어 1919년 3월 1일 폭발하게 된다.

그렇게 3월 1일, 모두의 간절함을 담은 뜨거운 만세의 바람은 한반도를 넘어 국외의 많은 동포들에게까지 닿아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으로 완전한 독립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이 날 모두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후의 많은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그 정신은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3월1일, 태극기를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 태극기를 달면서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혹시 모르고 지나치던 사람들에게도 태극기를 보여 함께 기억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보면 좋겠다.

여기저기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잠시 멈춰서 묵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본다. 1919년, 추운 겨울이 지나고 2021년 꽃이 피어나는 3월이 돌아온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 설

전북 도내 아열대 작물 확산의 원인

전북농업기술원이 최근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보급·확산시키고 있다. 작물 지도가 변하면서 전북 도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열대 작목 가운데 망고, 파파야, 용과, 올리브의 재배 면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감류로 분류되는 진지향이라는 과일은 감귤과 비슷하다.

열매가 완전히 익은 다음 수확한다고 해서 만감류로 분류된다. 도내에도 만감류 같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수백 농가에 이른다. 하지만 판로 확보가 쉽지 않다.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나무가 성장하기 까지 몇 년 동안 소득도 없다. 제주산에 비해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아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관건이다.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열대야와 집중 호우도 늘고 있다. 새로운 병해충과 잡초 발생, 냉해 및 동해 피해 등 갖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아열대 작물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확산에도 나섰다.

소비 확대를 위한 Festivel 개최, 아열대 Zone 랜드 마크 조성, 전북 토탈 관광과 연계한 아열대 작물 루트 운영도 하고 있다. 아열대 채소·과수 56종에 대해선 온도 권역별로 적응성을 검토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적합한 작목을 집중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에 적합하고 새롭게 수요가 예측되는 아열대 작물 육성이 절실하다.

보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래 농업과 농촌을 견인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아열대 작물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을 극대화 해 나가기 바란다.

북한의 SLBM과 개량형 미사일 공개

북한의 지난 1월 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병식은 지난해 10월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야간에 했다. 핵 잠수함 같은 무기 개발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신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당 대회를 마무리한 것이다.

특히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과 개량형 전술 미사일 등이 공개됐다. 심야 시간대를 택해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 한 가운데,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개된 신형 SLBM, 북극성 5형은 석 달 전 공개됐던 북극성 4형에 비해 탄두부가 커졌다. 직경도 늘렸다. 탄두에 여러 발의 핵을 실을 수 있게 하거나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완성도나 정확한 성능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SLBM의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SLBM은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핵잠수함을 통해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전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덩치를 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선보였다. 다만 석 달 전 열병식에서 내세웠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은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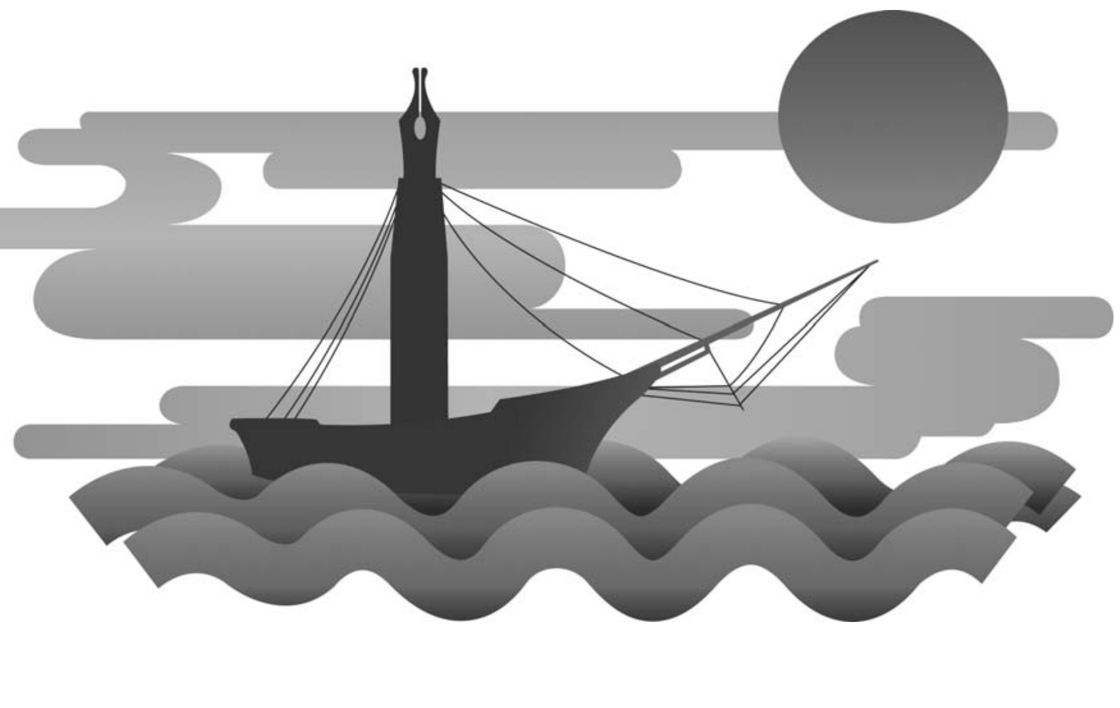
북한은 당 규약을 개정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문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중대 목표임을 천명한 것이다.

군사 강국이 되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을 노동당의 통제 아래 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새 규약에선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새롭게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대체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